

#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2년 11월 13일  
제1922호

주임 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 회장: 강세원 바오로

연령 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존엄이 불의로부터 구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 삶을 함께 나누고  
가장 작은 이들,  
곧 생필품마저 없는 이들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자기 삶의 빵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가난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문 중〉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2022

연중 제33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다해)

제 1 독 서 말라 3,19-20 | 너희에게 의로움의 태양이 떠오르리라.

화 답 송 시편 98(97) | ◎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제 2 독 서 2테살 3,7-12 |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복 음 루카 21,5-19 |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그때에 <sup>5</sup>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sup>6</sup>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sup>7</sup>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sup>8</sup>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sup>9</sup>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sup>10</sup>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sup>11</sup>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sup>12</sup>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sup>13</sup>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sup>14</sup>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sup>15</sup>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sup>16</sup>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까지 할 것이다.  
<sup>17</sup>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sup>18</sup>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sup>19</sup>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 세계 가난한 이의 날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6년 11월 ‘자비의 희년’을 폐막하며 연중 제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지내도록 선포하였다. 이날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의 모범을 보여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이들을 향한 자비와 연대, 형제애를 실천하도록 일깨우고 촉구한다.

### #복음 묵상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팬데믹), 기후 위기, 세대 간 갈등, 성 평등, 빈부 격차, 물가 상승 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떤 메시지를 던져 줍니까?

제1독서에서는 “화덕처럼 불붙는 날이 온다.”와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르리라.” 같이 대조적인 내용의 예언을 듣습니다. 악인에게는 종말의 대심판이 내려지겠지만, 선인에게는 메시아를 통하여 치유와 구원이 실현되리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잘못 이해하던 이들을 경계하고자 쓰인 편지입니다. 종말에 관하여 그릇되게 이끄는 이들에게 바오로 사도는 일상 속 노동의 가치를 거듭 강조합니다. 한편 복음은 성전 파괴 예고와 종말에 닥칠 재난과 표징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특별히 거짓 메시아와 종말에 대하여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닥쳐올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인류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이루신 구원 업적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느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종말을 희망 속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과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에게 저마다 맡겨진 일상 속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느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지어진 자연 생태계와 화해하고, 나와 다른 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물질로 환산하려는 유혹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김상우 바오로 신부>

## 세계 가난한 이의 날

##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2코린 8,9 참조)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2코린 8,9 참조).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궁핍한 형제자매들에게 연대를 보여 주는 그들의 노력을 격려합니다.

무분별한 전쟁이 낳는 빈곤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눈을 돌리는 곳마다, 폭력이 무방비 상태의 힘없는 이들을 어떻게 타격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뿌리를 잃고 다른 정체성을 갖게 하는 수많은 사람의 강제 이주, 누구보다도 어린 소년 소녀의 강제 이주를 떠올립니다.

수많은 여성과 어린이와 노인이 이웃 나라의 난민들처럼 피난처를 찾아 다만 안전을 확보하고자 폭격의 위협을 무릅쓰도록 내몰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식량과 물과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상태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애정에 주린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전쟁 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극심한 충돌 속에서 우리는 제6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거행합니다. 우리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가)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2코린 8,9 참조) 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바오로 사도의 권고를 성찰하도록 요청받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동안 바오로는 그에게 가난한 이들을 잊지 말라고 촉구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나라의 식량 기근으로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힘이 닿는 대로 헌금을 즉시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코린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해심이 있었고 매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요청에 따라 그들은 매주 첫날 자신들이 아낄 수 있는 것을 봉헌하였고 그들 모두 후한 인심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주일마다 거룩한 성찬례 거행 때에 우리는 공동체가 가난한 이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봉헌금을 모으며 같은 일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기쁨과 책임감으로 우리의 형제자매 가운데 아무도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게 하려고 언제나 해 왔던 일입니다.

연대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힘겹지 않도록 우리가 가진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진 것 없는 이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으로서의 공동체 의식과 친교 의식이 더욱더 커지고, 연대 의식이 더욱더 성숙하게 됩니다.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 자유와 책임, 형제애와 연대의 가치를 계속해서 지켜 갑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사랑과 신앙과 희망을 우리 삶과 행동의 바탕으로 삼도록 합시다.

올해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주제로 선택한 바오로 사도의 말은 우리 신앙생활의 이 위대한 역설을 보여 줍니다.

그리스도의 가난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삶은 광채를 띠게 되었고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가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지니신 보물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아무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이 특히 소외된 이들과 생필품마저 없는 이들을 찾아 나섭니다.

사랑 때문에 그분께서는 영광을 벗으시고 인간 조건을 취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분께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는 종이 되셨습니다(필리 2,6-8 참조). 사랑 때문에 그분께서는, 모든 이가 필요한 것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을 찾을 수 있도록 “생명의 빵”(요한 6,35)이 되셨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존엄이 불의로부터 구해지기를**

**바라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 삶을 함께 나누고**

**가장 작은 이들, 곧 생필품마저 없는 이들에게**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자기 삶의 빵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가난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평등을 이루는 길, 가난한 이들을 비참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유한 이들을 허영에서 벗어나게 하며**

**그들 모두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입니다.**

2022년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이 우리에게 은총의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날 우리가 개인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양심 성찰을 하고,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이 우리의 충실한 친구가 되는지도 자문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1 2차 헌금

이번 주일 미사 중에 성직자 은퇴기금(Retirement fund for Religious)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2 제83차 세례성사 안내

- **참고** : 11월 12일(토) 오후 6시
- **영세식** : 11월 13일(일) 오전 10시 미사 중(24명)
- **환영식** : 10시 미사 후 친교실 (B-1,2)
- 새로운 영세자들이 세례성사의 은총으로 주님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3 단체부 월례회의

- **일시** : 11월 13일(일) 11:30 (A-1,2)

## 4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11월 13일(일) 오후 1시 (B-3,4)

## 5 안나회 월례회의

- **일시** : 11월 20일(일) 오전 11:30 (A-1,2,34)

## 6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 11월 20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 7 2023년 매일미사 책 신청 및 병초(Box)주문

성물부에서 2023년도 매일미사 책과 제대초 봉헌을 받습니다. 자세한 것은 성물부에 문의해 주세요.

## 8 주교님과 함께 하는 묵주기도와 성시간

- **일시** : 11월 20일(일) 오후 4시
- **장소** : 성 토마스 모어 성당 (Cathedral of Saint Thomas More)
- “내 영혼이 주님안에서 기뻐 뛰노나니.” 교구 설정 50주년 희년 두 번째 해를 시작하며 교구 주교좌성당인 성 토마스 모어 성당에서 마이클 버짓지 주교님과 함께 하는 묵주기도와 성시간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https://www.arlingtondiocese.org/solemn-eucharistic-holy-hour/>

**Year Two** (2022년 11월 20일 시작)



### Rejoice

“My soul rejoices in the Lord.”

활력이 넘치는 교구의 현재 모습에 기뻐합니다.

## 9 2022년 동중부 꾸르실료 연말 울뜨레아

- **일시** : 11월 20일(일) 오후 3시 - 9시
- **장소**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17615 Old Baltimore Rd, Olney, MD 20832)
- **당일 교통편 제공** : 알링턴 성당 -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왕복
- **문의** : 이성기 토마스 (703) 928-5739

“

성당에서 Fair Lakes Pkwy / Stringfellow Rd로 나가실 때 교우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비보호 좌회전 시 주의를 요망**하는 표시판을 설치하였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11월 위령성월

#### ○ 위령성월 기도문 ○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 제가 비는 소리를 귀여겨들으소서.
- 주님께서 최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사와 더 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오며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축이 있음이오니
- 당신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이다.

†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 아멘.

Thank you

##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5일(토) Fairfax Memorial Park에서 위령 성월을 맞이하여 위령미사와 본당 주보성인인 성 정하상 바오로 성인의 성상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성상을 봉헌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분들과 묘지 미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교황님의 11월 기도 지향 고통받는 어린이들

고통받는 어린이들, 특히 거리의 아이들, 부모를 잃은 아이들, 전쟁의 피해자가 된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고 가정의 사랑을 되찾도록 기도합니다.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11월 6일(연중 제32주일)

주일 헌금	\$ 7,875.00
교무금	\$ 10,090.00
교무금(신용카드)	\$ 2,660.00
감사 헌금	\$ 230.00
2차 헌금	\$ 2,688.00
온라인 봉헌	\$ 2,765.00
<b>합계</b>	<b>\$ 26,308.00</b>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11월 17일(목) 오후 5:00 - 6:00  
 11월 18일(금) 저녁 8:00 - 9:00  
 11월 20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세계 성당을 가다 : 몬테네그로 코토르 대성당
3. 한국 교회사 : 복지 이도기 바오로

###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00 AM</li> <li>• 10:00 AM(교중미사)</li> <li>• 2:00 PM(학생미사)</li> <li>• 5:00 PM(청년미사)</li> </ul>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table border="1"> <tr> <th>화, 금</th> <th>수</th> </tr> <tr> <td>• 6:00 AM</td> <td>• 7:30 PM</td> </tr> <tr> <td></td> <td>• 11:00 AM</td> </tr> </table>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